

평화당 이어…빨라지는 바른미래 분당 시계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통합’ 이어 ‘호남 제3지대설’로 당내 갈등 심화

당권파-비당권파 외도 비난…당권파 “추석전 이혼 바람직”

지난 7일 유승민 의원을 고리로 한 보수 대통합설로 법집이 된 바른미래당이 8일에는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 움직임과 맞물린 정계개편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분당은 이제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유 의원의 바른정당계와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계가 ‘비당권파’를 이뤄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당권파’와 정면 대치 중이다.

당권파는 비당권파가 손 대표를 몰아낸 뒤 몸값을 높여 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비당권파는 당권파가 당을 ‘호남당’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애초 ‘자강’을 하겠다며 손잡았던 양측은 이제 상대의 ‘외도 정황’을 비난하며 분당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실제로 당권파 호남계 의원들은 그간 평화당 비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며 바른미래당 지붕 아래에서 ‘제3지대’ 창당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당권파는 그동안 유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에 “한국당으로 가라”며 갈등 봉합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접은 상태다. 특히 전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 의원을

향한 ‘공개 러브콜’을 보낸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굳혔다.

당권파인 호남 중진 의원은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과 제3지대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정치적 생존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중진은 이어 “서로 이종적 태도를 보이기 보다 솔직하게 헤어질 필요가 있다”며 “추석을 전후해 합의 이혼에 나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당권파 측은 이날 평화당 비당권파의 탈당 움직임에 맞춰 즉각 손 대표 측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비당권파인 지상욱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전날 나 원내대표가 개인적 생각이라 해명했음에도 손 대표는 유 의원 등을 정치 공격하는 사람으로 몰며 당을 나가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평화

당과 합치자 했던 분들이 바로 손 대표와 호남계 의원들”이라며 “정상적인 당 대표라면 그분들을 나무라야지, 있지도 않은 사실로 견강부화하면 되겠다”고 비판했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평화당 의원 입당설에 대한 질문에 “당헌·당규상(국민의당을 탈당한) 그분들은 개별 입당이 불가능하다. 입당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9명 중 비당권파가 5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구조로서 바른미래당의 분당은 피할 수 없다”며 “문제는 시기와 방법인데 과연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룰 것인가”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日, 어떻게 말 바꾸든 경제 보복”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제…대일 강공 기조 유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다시 한번 ‘보복’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일본이 조금이나마 공세를 ‘톤 다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

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런 흐름에도 문 대통령이 대일 강공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두는 듯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

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 일본에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대일 교역의 존도를 줄이고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윤석열 ‘어색한 만남’

윤, 검찰총장 취임 인사차 방문…황 “검찰 인사 편향” 주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은 뒤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전에서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을 만나 “검찰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70여건이 된다고 한다”며 “그중 극히 일부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 됐다. 얘기를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이 취임하셨으니 이를 면밀히

살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윤 총장의 검찰 선배인 황 대표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이날 면담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다만 윤 총장은 정면 대응하는 대신 의례적인 인사말로 논쟁을 피했다. 한 국당의 상징색인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윤 총장은 “지금의 공당의 대표지만 검찰의 대선배이니 대표님께 서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적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중히 받아들여 잘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與 “노 재팬 아닌 노 아베” 극일 메시지 수위조절

지도부, 올림픽 보이콧·여행 금지 등 반일 정서 과열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극일(克日)’ 메시지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직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식 회의 석상에서 연일 강경 발언이 이어졌으나 과도한 ‘반일(反日)’ 행태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톤을 낮추고 있다.

이미 국민 정서가 들끓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기보다 민간 영역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판단

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일본·일본인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를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며 ‘노 재팬’ 대신 ‘노 아베’라는 최근 여론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8일 “일본 전체를 상대로 하는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로 가는 게 적절하다”며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아베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구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노 아베’에 초점을 맞춘 당내 인사들의 발언들이 잇따랐다.

설훈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다”며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 옳은 말”이라고 썼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일본 전역 여행금지 구역 설정 검토 등 당 안팎에서 과열되고 있는 반일

정서와 움직임에 지도부가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경제보복과 스포츠 교류는 분리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올림픽 참가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 대신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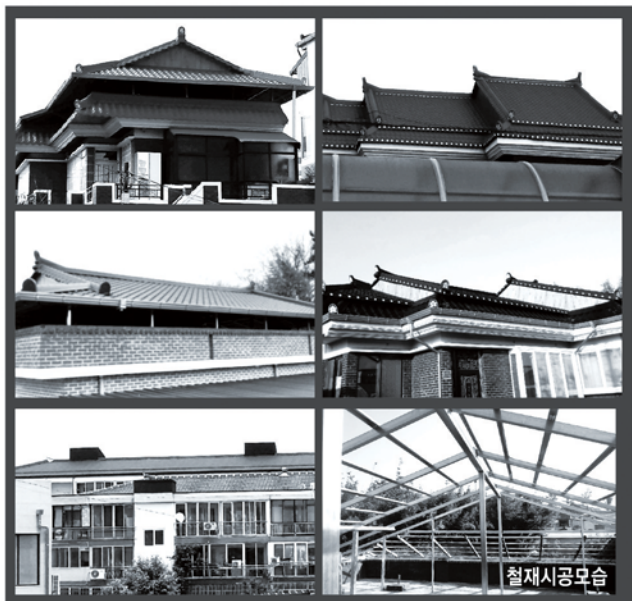
정세균 위원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정적 처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사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수료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